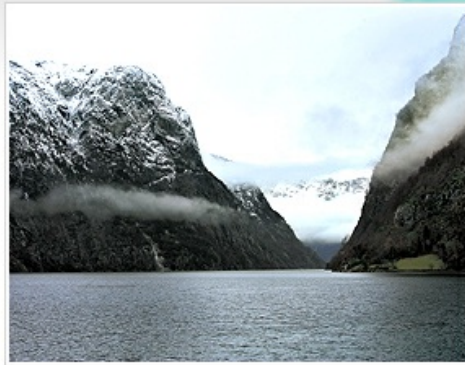


YONHAP | 연합레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Cover Story

Norway
The song of the Fj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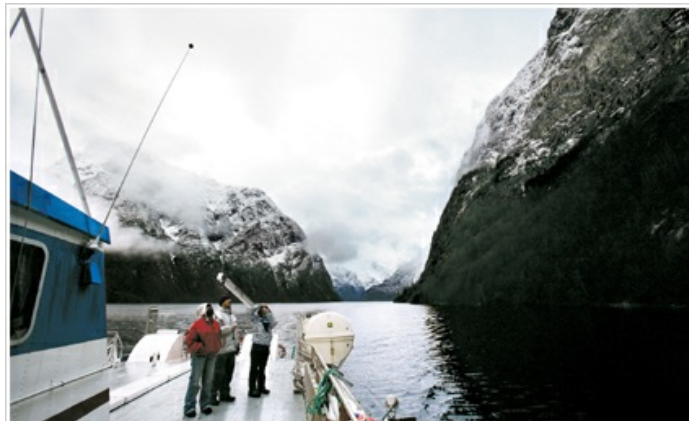
협만을 가르는 빙하의 노래

■ 사진/김주형 기자·글/장상배 기자, 협찬/스칸디나비아관광청(02-777-5943)
노르웨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해안선이 조각도로 예리하게 파들어간 모습이다. 수만 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빙하가 파행하며 바다로 흘러들어 빚어놓은 피오르드다. 빙하가 밀려나간 자리로 바닷물이 밀려들었는데, 빙하의 소멸은 곧 피오르드의 탄생이었다.
피오르드의 잔잔한 수면 위로 죽순처럼 솟아난 산허리에 여름이 찾아들면 협만 양안(兩岸)에 쌓였던 눈은 기슭으로 밀려 올라간다. 신생의 그 터전은 다시 초목이 무성해진다. 조각케이크 위에 뿌려진 설탕가루처럼 빛나는 만년설 눈꽃이 여름 햇볕에 스러져 포효하며 바다로 자진한다.



Norway in a Nutshell

숨이 막힐 지경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존재할까?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여행상품인 '노르웨이 인 어 너셀 (Norway in a nutshell)'이라면 그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노르웨이 인 어 너셀'은 이름 그대로 노르웨이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빙하, 만년설, 폭포, 호수, 산악열차가 조합된 콤비네이션 투어다. 한 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힘든, 지구상에 구현된 창조주의 미의식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The song of the Fjords

거친 산악지형으로 인해 노르웨이 사람들이 투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바이킹의 후예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성정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향유한다. '노르웨이 인 어 너셀' 투어에선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최상의 지혜와 미덕을 발견하게 된다.



The song of the Fjords

피오르드는 노르웨이어로 '내륙을 가르는 협만(峽灣)'이란 뜻이다. 빙하가 빚어놓은 U자형 단면의 해안선으로 수심이 깊고 미로처럼 복잡하다. 산과 해수면이 경계를 이루는 지대에 드문드문 마을이 자리 잡았는데, 밝고 따뜻한 색깔의 목조건물로 목가적인 정감을 준다.



Bergen

중세도시에서의 우중산책

베르겐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는 한산했다. 창밖으로 봄을 재촉하는 부슬비까지 내려 고즈넉한 정취로 채색됐다. 알마를 달려왔을까? 버스는 수백 년 시간을 거슬러 온 듯 어느 중세도시에서 사람들을 내려놓고는 다시 빛속으로 사라졌다.



Night of Bergen Harbour

베르겐의 진면목은 시내 동쪽에 위치한 플뢰엔 산(Mt. Floyen, 320m)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야경이다. 케이블로 움직이는 미니열차를 타거나 등산로를 걸어서 전망대에 오르면 경이로운 신세계가 펼쳐진다. 100만 달러에 버금간다는 홍콩 야경보다 더 아름답고 운치 있다. 한밤의 베르겐은 거대한 음양지대에 세운 도시처럼 불타오르는 듯하다.



Oslo

가족, 그 위대한 이름으로

1000년 전 탁월한 항해술과 전투력으로 유럽 대륙 정복을 도모했던 바이킹 선단은 오슬로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바이킹의 후예들은 이제 빨 달린 투구를 벗어버리고 가족과 함께 연어요리를 만들며 요트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긴다. 그들은 멀리 지중해까지 원정을 떠나 이민족의 땅을 정복하던 응축된 에너지를 가족의 행복, 평등과 인류애의 구현에 쏟아붓고 있다.



Peace & Happiness

오슬로는 한적한 전원도시로 다가온다.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래서일까? 매년 12월 오슬로 시청사에선 노벨평화상 수여식이 거행된다. 6개 노벨상 중 평화상이 오슬로에서 시상되는 것은 노벨의 유언 때문이다. 스웨덴 출신인 그가 평화상 시상지로 오슬로를 택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Norway Information

노르웨이는 지난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으로 꼽혔다. 또한 평균수명, 교육수준, 국민소득 등을 평가한 유엔 인간개발지수(HDI)에서 6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 원조액도 가장 높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을 입증했다.

노르웨이 인 어 너트셸(Norway in a Nutshell) 기차, 버스, 페리, 산악열차를 이용해 피오르드와 만년설을 감상하는 콤비네이션 투어이다. 오슬로-뮌스터-플롬-구드방겐-보스-베르겐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오슬로부터 베르겐까지 전체 일정이 포함된 티켓 가격은 왕복 1896크로네, 편도 1165크로네이다. 티켓은 구간별로 묶어 판매되기도 하며, 발행 후 2개월간 유효하다. 16세 미만은 50%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4세 미만은 무료다. 유레일패스 소지자는 버스와 페리 요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티켓은 오슬로와 베르겐의 여행안내센터, 기차역, 여행사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www.fjordtours.com

아케르hus 요새(Akershus Slott) 13세기 호콘 5세(King Hakon V)가 오슬로 동쪽 바위산 위에 세운 성채다. 17세기 초 오슬로 대화재로 잿더미가 된 것을 크리스티안 4세(Christian IV)가 르네상스풍으로 재건했다. 현재 국외 주요 인사의 노르웨이 방문 시 영빈관 겸 연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 아래 해안도로는 19세기 말엽 뭉크가 친구들과 산책을 나왔다가 '절규'의 모티브를 얻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되며, 매일 오후 1시 30분 워병 교대식이 거행된다. www.akershusfestning.no

노벨평화센터(Nobels Fredssenter)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업적 자료와 알프레드 노벨에 관한 기록이 전시된다. 옛 기차역을 개조해 2005년 6월 11일 문을 열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거행되는 오슬로 시청 부근에 위치한다. 입장료는 80크로네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www.nobelpeacecenter.org

국립미술관(Nasjonalgalleriet) '절규' 등 뭉크의 대표작을 비롯해 19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노르웨이 국내외 회화 및 판화작품 4만여 점과 조각품 19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미술관으로 갈 요한 거리에 위치한다. 입장은 무료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www.nasjonalmuseet.no

국립극장(Nationaltheatret)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무대공연장이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가인 입센(H. Ibsen)과 비에른손(B. M. Bjørnson)의 작품이 주로 공연된다. www.nationaltheatret.no

바이킹 선박 박물관(Vikingskipshuset) 오슬로 비그뵈이 지구에 위치한다. 오슬로 피오르드에서 발견된 오세베르그, 고크스타, 투네 등 바이킹 선박 3척을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크고 우아한 오세베르그(Oseberg)호는 9세기 초에 건조된 것으로 30여 명이 노를 저어 항해했다고 한다. 바이킹 왕족의 관으로 이용돼 발굴 당시 각종 장식품과 의류, 그릇 등 많은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여름 시즌(5~9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입장료는 50크로네이다. www.khm.uio.no

홀멘콜른 스키 점프대(Holmenkollen Ski-jump Tower) 노르웨이 사람들은 3살부터 90살까지 스키를 탄다고 알려져 있다. 오슬로 안팎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코스만 해도 수백km에 달한다. 홀멘콜른 스키 점프대는 1952년 오슬로 동계올림픽 당시 스키점프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점프대에 오르면 오슬로 시내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점프대 건물에는 스키박물관, 기념품점, 카페 등이 위치한다. 스키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키와 난센, 아문센이 극지방 탐험 때 사용했던 스키장비 등 노르웨이의 4000여년 스키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www.skiforening.no

베르겐 트롤트하우젠(Troldhaugen) '트롤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1885년 세워졌다. 그리그(Edvard Grieg)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2년간 기거하며 수많은 명곡을 남겼다. 그리그 부부의 무덤이 위치하며, 그리그 박물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베르겐 도심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소요된다. 여름 시즌(5~9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입장료는 60크로네이다. www.troldhaugen.com

베르겐 플뢰엔 강삭열차 두 대의 미니열차가 케이블로 연결돼 베르겐 플뢰엔 산을 오르내리는 90년 역사의 강삭열차(funicular railway)이다. 베르겐항 전경과 야경을 감상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여름 시즌(5~8월) 자정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왕복 요금은 70크로네이다. www.floibanen.no

항공편 한국과 노르웨이를 잇는 직항편은 없다. 스칸디나비아항공, 루프트한자독일항공, 네덜란드항공, 핀에어, 스위스항공 등으로 유럽 주요도시를 경유해 오슬로에 닿을 수 있다. 유럽 주

요노시에서 오슬로까지는 1~2시간 소요된다. 오슬로 북쪽 약 50km 거리에 위치한 가드네르보엔(Gardermoen) 국제공항은 오슬로 중앙역에서 공항고속열차로 약 20분 소요되며 편도 요금은 160크로네이다. 스칸디나비아항공이 지상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공항고속버스도 수시로 운행된다. 오슬로 버스터미널까지 약 40분 소요된다.

오슬로 패스(Oslo Pass) 오슬로 시내의 거의 모든 박물관 입장이 가능하고 버스와 지하철, 전차 등 대중교통수단(심야버스 제외) 이용이 무료다. 1일, 2일, 3일권이 있으며 가격은 각각 210, 300, 390크로네이다. 여행사 투어 프로그램, 렌터카, 레스토랑과 상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안내센터, 호텔, 지하철역, 우체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www.visitoslo.com 오슬로의 여름 평균기온은 20°C, 겨울은 -4°C이다. 인구는 약 54만 명이며, 외국인 이민자가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환율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미가입국으로 자국 화폐인 크로네가 통용된다. 대다수 은행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영업한다.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유로를 받기도 하지만 환전수수료가 높아 크로네를 사용하는 게 낫다. 4월 중순 기준으로 1크로네는 약 160원이다.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다. 서머타임 기간인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9월 마지막 일요일까지는 7시간 늦다

[▲ top](#)